

#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선거철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공포 혐의 기소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 확정



서거석 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유정기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은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 교육감 직위도 이날부로 상실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갑작스러운 공석 사태로 전북교육청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한 간부는 "서 교육감이 지난 3년간 학력 신장과 교권 보호, 학생복지 확대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왔는데 이렇게 물러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한 간부는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퇴진으로 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학력 향상, 교권 강화, 복지 확대 등 서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교 육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부교육감이 교육청 수장을 대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시스템에 따라 행정이 운영되는 만큼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전 교육감의 낙마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서 전 교육감은 전북연구원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노병섭 새길여여는잡교육포럼 대표,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 학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성동 좋은 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의 이름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최성민 기자

# 전북, 여의도에 '도민주권 현장상황실' 긴급 가동

'정책·예산·민생' 분야 총력  
 서울 조직 중심 실시간 대응  
 국회·정부 겨냥 건의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책 수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도민주권 전북,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이에 따라 26일 중앙협력본부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책·예산·민생' 3대 분야에 대응하는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다.

김 지사는 "국정 설계의 골든타임은 한순간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며 "정책·예산·민생' 3대 전선을 돌파할 전북의 전진기지를 즉각 가동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황실 출범은 전북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 및 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현장상황실'은 △국정과제 반영 △국가예산 확보 △민생회복 대응 등 3대 전략 기능을 중심으로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실·국, 중앙협력본부 등 실무조직이 서울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정과제 반영팀'은 국정기획위원회 및 정부 분과별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전북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기획위원회 기획위원·전문위원·지역구 및 연고 국회의원 등에게 전략적으로 건의한다.

'국가예산 대응팀'은 정부 추경 및 2026년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 국회 예결위 심의 상황을 연말까지 밀착 모니터링하며,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자

치도의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한다.

'민생회복 대응팀'은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집행 방안을 파악하고, 도민 체감형 민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전달체계 개선에 주력한다.

특히,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보고 체계를 통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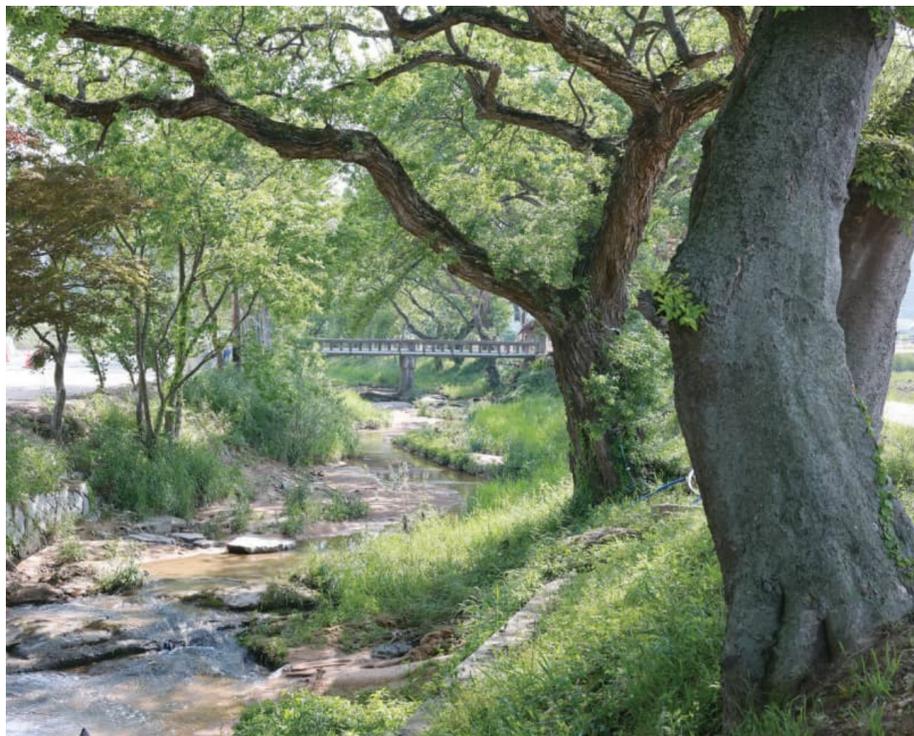
사에게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즉시 모색하는 '워룸 온(War Room On)' 지휘체계가 핵심 작동 원리다.

'워룸 온'은 전시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여 전쟁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작전을 세우는 곳으로, 한 공간에 상주하며 상시 정보 공유 및 대안 모색하기 위한

상황실이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 정책, 전북 핵심현안, 추경안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설 간직한 마을숲 천연기념물 된다

고창군은 26일 '고창 삼태마을숲'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고창군>

# 전북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5년 로드맵 그린다

육성 추진협의회 무주서 개최  
 6개 시군 참여 실현 방안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무주천마연 구센터에서 '2025년 제2차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협의회'를 열고, 동부권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 공무원과 사업단 관계자, 참여기업,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강과 토론을 통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대환 전북자치도 균형발전전담팀장이 '제3차 동부권 발전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정책 동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동부권특별회계 농식품 분야 투자 방향과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지역상생사업 발굴 추진계획'과 '2025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 및 보

완사항'에 대한 시군별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동부권 4단계 사업 구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모델과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에도 매 분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협업이 지속되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가 전북 대표 식품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고창 삼태마을숲'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국내 최대 규모 왕버들 군락지  
 '배 묶는 말뚝' 마을 전설 간직

고창군은 '고창 삼태마을숲'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고창의 풍부한 자연유산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로, 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삼태마을숲은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m길이의 마을숲으로 주변 농

경지와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왕버들 노거수 95그루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200여년 이상 각종 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온 호안림, 방풍림 역할의 대규모 전통 마을숲으로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에 남아 있으며, 풍수 비보 역할의 구전이 전해지는 등 역사적, 신앙적 의미가 큰 숲이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배 형상의 마을이 거친 삼태천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두는

말뚝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유서 깊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다.

고창군은 삼태마을숲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학술조사 및 자료보고서 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삼태마을숲 천연기념물 지정은 고창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증거이자 고창군민들의 자부심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고창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대한민국 첨단농업도시

대한민국

첨단농업도시

# GIMJE

IOT

SMART FARMING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은 더 스마트하고, 농촌은 더 매력있게 만들어갑니다.

# 완주군민대책위 “행정통합 일방 추진 중단하라”

## 김관영 도지사 “반대측과 대화 피한적 없어” 사실과 다른 주장 지적

완주·전주 행정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관영 도지사는 군민과의 대화 무산 책임지고 행정통합 일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5일 김관영 도지사 완주군 방문은 ‘군민과 대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자리였지만, 주민들은 이를 ‘보여주기식 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 도지사는 도청에서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차명해 “지금까지 반대하는 군민과 대화를 피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부터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대책위가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김 도지사는 단 한 차례도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완주군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거짓말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도지사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며, “반대하는 70여 사회단체와 군민들이 초대하겠다. 기탄없이 불러주면 달려오겠다고 했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번 통합 추진에 대해 완주군민들은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촉발된 사안일 뿐,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의 자발적인 요구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도지사는 통합 찬성 주민의 의견을 근거 삼아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통합 반대 서명 3만 3천여 명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지방자치위원회에 통합 거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여론조사, 공공기관 이관 논의까지 모두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군민의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도해왔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완주군민들은 “행정통합은 주민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통합이 한 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실제 다른 지역의 통합 사례에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일방적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도지사가 중립, 여론조사, 공공기관 이관 논의까지 모두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군민의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

/완주=김명곤 기자

# 전북도, 전남 신안군 기본소득 정책 벤치마킹

## 군민 기본소득제도 현황 현장서 정책 파급 효과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원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솔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

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북의 현실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선진지 벤치마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27일에는 익산 상당포구마을을 방문해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연금 운영 방식과 공동체 기반 소득보장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전북자치도의회 내 정책 연구 모임으로,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성과와 한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구조와 산업 특성, 재정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구상하고, 지역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전남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김명태 기자

# 이병도 도의원, 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 촉구

##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 광역지원센터 설치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해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

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북은 광역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이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지자체(서울·충남·부산·경기·경남·제주), 5개 교육청(서울·경기·대구·충남·경북)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건물 등 교육시설 건축수요가 꾸준히 있어 건축기획업무 의무이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의 경우 이미 수년째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주거복지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높지만 주거복지정책은 소극행정과 탁상행정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태 기자

# 전북도, ‘명칭’ 정비 도민 참여 이벤트

## 27~7월14일까지 SNS 활용 참여형 캠페인

‘전라북도’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도민 참여형 캠페인이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명칭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정비 온라인 이벤트’를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참여는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4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도로, 문화재, 하천, 관광 안내 표지판, 공공청사 간판 등 5,150건의 명칭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 ‘도로표지판·문화재 표지판·하천 표지판·관광안내 표지판·청사 간판’ 등에는 여전히 과거 명칭이 남아 있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정비되지 않은 사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전북도 내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에서 ‘전라북도’로 표

기된 안내판, 간판 등을 촬영한 뒤, 위치 정보와 함께 도 공식 SNS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등 전북특별자치도 SNS 채널을 통해 운영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특히 가장 많은 장소를 찾아 제보한 30명에게는 4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이 제공되며, 일반 참여자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이 지급된다.

도는 이벤트 종료 후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도내 관계 부서 및 각 시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명칭 정비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128년간 사용해 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도민 정체성과 자긍심의 문제”라며 “도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새로운 전북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명태 기자

# 김동화도의원, ‘담배회사 책임 촉구 결의안’ 본회의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합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소비자 기본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역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닌 사회적 손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명태 기자

# 김정수 도의원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고, 올해 전국 3곳(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향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 의원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국가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여건, 문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을 공감하나 지원대상과 예산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태 기자

## 여름 실내적정온도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에어컨 작동중 일때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민생회복·소비 촉진에 역량 '집중'

## 우범기 시장, 민생경제 회복 지역발전 새정부와 발맞춰 '민생경제 TF팀' 가동도

전주시가 새정부 추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추경 편성에 '전주사랑상품권'을 지역 내 소비 촉진에 집중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생경제 TF팀'도 함께 가동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26일 우범기 전주시장 주재로 '제21대 대통령 지역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에 발맞춘 공약별 실행 전략과 자원 확보 방안, 민생안정 새정부 추경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주지역 7대 공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의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새 정부의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및 15대 정책과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전주지역 공약 대부분이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국가 균형발전 △성장 기반 구축 등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통령의 전주지역 7대 공약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지원 △K-영화·영상산업 거점 조성 지원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지원(모두에슬콤플렉스·특화도서관 건립) △국립전주박물관 일원 전주 K-헤리티지 복합문화단지 조성 지원 △피지컬 AI특화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지원 △아호호수 일원 K-Lake 조성 지원 △노후화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현대화사업 추진 지원 등이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약인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사통 발달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호남공약으로 발표된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의 세계적 문화자산 육성 등에 대해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 안정 위한 새정부



전주시가 새정부 추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추경 편성에 '전주사랑상품권'을 지역 내 소비 촉진에 집중한다. <사진=전주시>

추경 편성에 대응해 향후 시민들에게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전주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시민·기관·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범시민 운동인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민생경기가 안정될 때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민생경제 TF팀'도 운영한다.

TF팀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추진될 다양한 미래경제 전략사업에 대한 공모에

도 적극 대응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공약이 주요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정비해야한다"며 "각 공약사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부처 활동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아시아 청소년 넷볼 대회' 전주서 개최

27일~7월 4일까지 11개국 3백여명 참가

제13회 아시아 청소년 넷볼 선수권대회 오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제13회 아시아 청소년 넷볼 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

대회는 아시아넷볼협회와 전주시넷볼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주시체육회, 한국넷볼협회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등 아시아 11개국 총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조별 예선 리그를 거쳐 준결승 및 결승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개막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대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는 시티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되 진행한다.

시는 참가국 청소년들에게 전주의 전통문화와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주시넷볼협회가 지난 2017년과 2023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아 유치한 국제대회다.

넷볼의 대중화는 물론 전주의 스포츠 국제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청소년 선수들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주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JJRI 정책브리프 제9호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JJRI 정책브리프 제9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JJRI 정책브리프'에는 인구감소 문제 대응과 전북 중심도시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전주시 인구는 지난 2020년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발생해 향후 지방 소멸 위기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든 세대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행복한 도시 전주'라는 전주시 인구정책 비전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활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제언한 전략 목표의 효과적·효율적인 달성을 통한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국비지원 확대 및 유지 전략 수립, 민자유치·제3섹터의 활용, 세출 구조의 조정, 전주시 인구감소대응기금(가칭) 설치 및 운용 등을 통한 재정 확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주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주거·문화·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인구정책 전략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윤미 시의원,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통문화 등 특화자원 기반 건강한 관광도시 기대



전윤미 시의원

전윤미 의원(호주2·3·4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조례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몸과 마음 건강과 치유, 회복 중심의 '웰니스 관광'

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정의 및 육성 목적 △시장 책무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건강·비대면·힐링 관심이 높아지며 '몸·마음·치유·회복'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

정부는 지난 2017년 우수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의 사업 추진과 올해 3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전북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웰니스관광 생태계 구축' 비전 조례 제정,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전주시의 전통문화·미식·자연환경 등 지역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강조했다.

전윤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치유와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거환경개선후원금 5백만원 기탁

## 에너지 주거 취약계층 연탄사용 가구에 사용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6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에너지 주거 취약계층 연탄사용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및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책임·전문기관으로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 성장과 지역 상생협력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기탁된 주거환경개선 후원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총괄 운영하는 민·관 협력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 사업을 통해 연탄 사용 60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 안전 설비 및 저탄소 난방 지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 1004 봉사대)는 지난해에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6가구의 노후 전기 안전 설비 개선 봉사를 실시하고, 생필품과 탄소 난방 개선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날 "에너지 취약계층인 연탄 사용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 참여를 통해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매우 많은데, 어르신들이 쾌적한 주택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6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에너지 주거 취약계층 연탄사용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전주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주거복지 안전망 시민들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공공분야 노동 현장 간담회

전주시는 26일 공공기관 단위노조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계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전주시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무보좌관, 경제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더불어 한국노총 전주시지역본부에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동전주주

체국, 한국도로공사 등 9개 단위노조 대표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노동자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노동자들이 행복한 도시가 진정한 시민의 도시이며, 오늘 나는 이야기들이 전주의 노동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 화재안전관리 강화

### 자원순환시설 화재 예방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리동에서 화재 안전관리 강화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썩어 폐기물의 열축적에 따른 자연발화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시청,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 8곳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적정관리

와 화재위험요인 분석 △예방대책 수립 및 정보 공유 △소방시설 주기적 관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과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 입주업체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폐기물이 대량으로 보관되는 자원순환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해물질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자원순환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맞춤형 지도를 강화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산재·임금 체불 없는 노동환경 만든다

### 노사민정協, 복지향상안전심의

전주시지역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임금 체불 없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엠베서더 3층에서 '2025년 상반기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 존중 도시 실현과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안전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 △노사민정협의회 조직 개편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산단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 추진 계획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 의결

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여성경제인협회, 산단협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썬위드) 등 다양한 신규 위원들이 위촉돼 협의회 대표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없는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전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어린이집 193곳 급식·위생점검

전주시 덕진구는 오는 8월 14일까지 덕진구 권역의 어린이집 193곳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이 필요한 62개 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나선다.

점검은 급식·위생 분야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식단표 △

급식 운영과 안전 분야 △통합 안전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으로 나눠 전문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진단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 공공기관 부채 평균 1조5천억 '적신호'

## 전북 공공재정건전성 빨간불 10개 기관, 3년 연속 고부채 구조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3년간 도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이 평균 1조 5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기관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며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북 소재 10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합은 ▲2022년 1조 5,434억 4,000만원, ▲2023년 1조 6,462억 1,100만원, ▲2024년 1조 4,987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며 고착화된 재무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부채비율은 2022

년 198.78%에서 2024년 238.59%로 치솟아 최고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 부채 총액은 2022년 3,029억 원에서 2023년 2,940억 원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2,994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역시 심각한 재무 구조 악화를 겪고 있다. 부채는 2022년 2,076억 원에서 2024년 2,746억 원으로 670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37.38%에서 209.41%로 연평균 23%포인트씩 상승했다.

국민연금공단도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절대 부채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단의 부채는 2022년 7,325억 원에서 2023년 7,851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5,849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년 연속 부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2,286억 원,

2023년 2,615억 원, 2024년 2,755억 원으로 매년 부채가 늘었고, 부채비율도 39.93%에서 60.00%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이 외에도 기관별로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2년 118억 원에서 2023년 67억 원으로 부채가 급감했으나, 2024년 다시 96억 원으로 증가해 등락을 반복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2023년 132억 원으로 부채가 늘었다가 지난해 114억 원으로 다시 줄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3년 7억 원에서 2024년 12억 원으로 71.4% 급증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022년 74억 원에서 증감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56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기관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부채를 2022년 400억 원에서 2024년

359억 원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도 같은 기간 부채를 1억 9,3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으로 소폭 줄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도내 공공기관들의 부채 수준이 고착화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재무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관리' 항목 배점을 2배로 상향 조정한 만큼, 각 기관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고부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 조대선 전북대어린이병원장, 병원협회장상

### 감염병 예방전공의 수련 공로 지역 보건·건강증진 선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조대선 어린이병원장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병원협회회장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전북병원회와 각 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병원협회장상을 수상한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장 조대선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지역 사회의 감염병 예방 활동에 힘쓰고, 전공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조대선 교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

장을 맡아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교육인재개발 실장을 맡으며 전공의 수련 및 직원 교육 책임자로서 우수한 지역 의료 인재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장직을 역임하며 소아청소년 질병 관련 연구 및 예방 사업, 치료 지원사업, 어린이 병원학교 사업과 같은 공공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조대선 어린이병원장은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더 나은 지역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 LX공사, 디지털 지적 기반 SOC 협업 확대

## SOC 활성화 국토 포럼 개최 협업사례 공유·신규 과제 발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SOC사업 기관과 신규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26일 LX대전지사서 '2025년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포럼'을 개최했다.

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SOC사업 전반에 걸친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의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최된 포럼에서 LX공사는 보상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용지도 활용 방안 및 공공인프라 플랫폼 시연, 드론영상 활용 기본조사 방안 등에 대해 발

제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협력방안 △국가철도공단도 철도건설사업 협력사례 △한국도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 보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하반기 사업 추진 전략 및 협업 방향을 공유 및 신속한 토지 보상과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각종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SOC사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만드는 것에 뜻을 모았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정부의 SOC사업 예산 증액 기조에 맞춰 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SOC사업 기관과 신규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26일 LX대전지사서 '2025년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LX>

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토 포럼이 기관 간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업을 통해 공공사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농협, 나눔요양병원과 의료지정 업무협약 체결

### 고령 조합원 건강·복지 증진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20일, 나눔요양병원 이사장실에서 '의료지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인규 조합장과 신용임 나눔요양병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지역 농업인, 특히 고령·취약 조합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지원 △조합원을 위한 의료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인규 조합장은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농사와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농진청, '농생명 AI의 만남' 인공지능 혁신콘서트

## AI·R&D 전문가들 머리 맞대 AI로 품종 개발·작황 예측

농촌진흥청은 지난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생명과 AI의 운명적 만남,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농업기술 혁신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농업 연구개발(R&D)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민관 융합 토론회로 열렸다.

농생명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초강대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농생명 분야에 AI를 접목해 미래 신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1부에서는 △유재민 카이스트 교수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구영현 세종대 교수의 농업 분야의 병해충 진단에서 AI 기술 적용 사례 △최준기 대동AI랩 대표의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의 진화'를 기조 강연이 있었다. 전문가 시각에서 전하는 인공지능 개념과 최신 기술 현황을 알기 쉽게 풀어내 호응이 컸다.

2부 토론회에서는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생명 형질 예측 △지능형 온실 제어 △영양 기반 개체 탐지 △작황 예측 기술과 함께 농업로봇 자율제어 분야에서 실제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융합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강연자,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인공지능(AI)을 농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이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인공지능으로 국가전략산업 대전환'이란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과



농촌진흥청은 지난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생명과 AI의 운명적 만남,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농업기술 혁신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농진청>

농생명 기술로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적 민관 협업 사례라고 평가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병석 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품종 개발, 작황 예측, 농업로봇 등 전 분야에서 농업의 생

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며, "농업이 디지털 기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신협 전북본부, 고창 석정웰파크호텔과 MOU 체결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일환 임직원 연수·조합원 관광 추진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가 지난 25일 고창군 소재 웰파크호텔(CEO 이종균)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생활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은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전북신협은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양 기관이 협약을 추진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고창군에서 임직원 연수, 주요 회의행사 등의 일환으로 고창군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웰파크호텔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설전반을 협약된 요금에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를 활용한 행사장소 제

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창군은 세계유산도시로서 고인돌 유적, 모양성 등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복분자, 수박, 장어 등이 유명하다.

또한 빛꽃 축제, 정보리밭 축제, 고창 모양성 등 축제가 4월부터 11월까지 있으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규모 핑크몰리 꽃밭 또한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고창 정보리밭은 '폭삭 속 앵수사', '도깨비'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돼,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명소가 알려졌었다.

고창신협 운영진 이사장은 "고창의 볼거리를 모두 다 섭렵하려면, 4계절을 지나야 한다"며 세계문화유산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내는 일이 방문객의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전북신협 임직원이 고창을 더욱 찾고, 나아가 전북도민에게 사랑받는 고창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전북은행, VIP고객 대상 JB 자산관리 세미나 열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6일 '더 퍼스트 라운지(THE FIRST LOUNGE)' 본점 지하 1층에서 '제3회 JB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은행 VIP 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THE FIRST LOUNGE의 프라이빗 공간에서 상숙 및 증여 관련 세금 이슈를 주제로 김세종 세무사(에스제이텍스)와의 질의 응

답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금융 전문 세무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세무 이슈 등 특별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 참여와 집중도를 높였다.

김세종 세무사는 실제사례를 통해 고객들의 세무 및 자산관리 문제를 다루며 복잡한 세무 이슈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대, RISE사업 발대식...600억 규모 사업비 확보

전북 내사립대학중 최대규모 지역맞춤형 인재양성등목표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RISE사업 발대식'을 26일 전북 부안 소노벨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단 참여 교수진과 실무 담당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RISE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참여 구성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대학교는 이번 RISE사업을 통해 연간 121억 8천만 원, 5년간 약 6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립대학 중 최대 규모다.

아울러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글로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RISE사업 발대식'을 26일 전북 부안 소노벨에서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에도 선정되어 2년간 약 37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주대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적 고등교육 모델

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발대식에서는 한동욱 RISE사업단장의 사업 추진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Track별 사업 계획, 교육·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참여 교수의 역할 및 협력 구조 등에 대한 공유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행력 있는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전주대학교는 이번 RISE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산업 기반 산학협력 고도화 △대학-지자체-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을 이끄는 핵심 대학으로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학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참여 교수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 JBNU 지역발전연구원, 지역 상생 위한 연대 강화

농수산대학 등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JBNU 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이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최근 지역 기관들과 잇달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시작으로 25일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잇달아 협약을 체결했고, 30일에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통해 농수산업 발전과 청년 창업 활성화, 고령사회 대응 등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지난 24일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진진)과 지역 농수산업 발전과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로 정책 기획, 공동 연구, 자문,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어 25일에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JBNU 지역발전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기술 기반 노인 일자리 개발, 수요처 발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정책 개발 등에 협력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

과 연계된 사회적경제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강영재)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며, 리빙랩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성민 기자

## 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형에 전북 교육계 '슬렁'

전북교총 교사노조 등 성명서·기자회견 진행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전북 교육계가 크게 슬렁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 교육감의 직위 상실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로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다만 신뢰받았던 전북교육의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을 중단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교

육정책 기조로 전환하라"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은 교육적 정의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의 반교육적 정책과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쉬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면서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려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천호선 전주교대 교수, 노병선 새길어린이참교육포럼 대표, 김윤대 우석대 사범대 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35주년 "새로운 출발 다짐하다"

2025년 비전선포식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26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며 전북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실적을 새롭게 다짐한다.

아울러 특별전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 개막과 새단장한 '서예문화' 상설 전시 재개관으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박물관은 오늘 선포식에서 '깨어있는

역사, 살아있는 문화, 모두에게 열려있는 역동적인 박물관'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박물관의 새 비전은 먼 옛날부터 세상을 향해 꽃피우고 당당하게 문화를 꽃피워 온 전북의 역사를 바탕으로, 언제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활기찬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비전을 한 줄에 담은 새 슬로건 '청년정신, 국립전주박물관'과 박물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새롭게 정비한 MI(Museum Identification) 또한 선포

식에서 공개한다. 슬로건 '청년정신, 국립전주박물관'은 개관 35주년을 맞은 국립전주박물관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모두에게 열린, 흥겹고 신나는 역동적인 박물관을 만들어가려는 서른다섯 청년의 힘찬 의지를 새 슬로건에 담았다.

'비전선포식'은 지난 35년 동안 멋과 풍류를 지닌 예향(藝鄕) 전주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화를 꽃피웠던 전북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해 온 국립전주박물관이 앞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호흡하며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리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새로운 비전 아래 '지역문화 활성화'와 '서예문화 특성화'를 박물관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국립전주박물관 박경도 관장은 "멋과 여유가 넘치는 가운데서도 꽃피는 심지를 가지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일구어 왔다는 점이 전주와 전북의 매력인 것 같다. 언제든지 편안함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 우석대, '제23회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7월 3일 전주캠퍼스 체육관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제23회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우석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전북특별자치도의회·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완주군의회·완주군체육회·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완주군태권도협회·전북일보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는 지난 2003년 대한태권도협회 공인 품새대회로 시작해 2015년 겨루기 종목이 정식 승인되면서 해마다 참가자 규모와 경기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현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태

권도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회는 격파·폼새·겨루기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격파 부문은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남녀 중·고등부 선수 170명이 출전해 체공도약격파와 수직축회전격파, 수평축회전격파, 종횡격파 등 고난도 기술을 선보인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품새 부문에는 1417명이 참가한다. 공인 품새는 개인전(남녀 각 18개 부)과 복식전(혼성 6개 부), 단체전(남녀 각 6개 부)으로 나뉘며, 자유 품새는 개인전(남녀 각 2개 부)과 복식전(혼성 3개 부), 단체전(혼성 3개 부)으로 구성된다.

겨루기 부문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남녀 고등부 선수 602명이 참가해 10개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하기 전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 운동 필수!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등)부터 물을 적셔요.

수영 금지 구역과 바다의 안전선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은 금물!

아이들은 항상 어른과 함께 물에 들어가야 해요.

### 군산시, 'KPGA 군산CC 오픈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군산시가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일간 'KPGA 군산CC 오픈'에 맞춰 군산컨트리클럽(이하군산CC)에서 군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군산골프&리조트가 주최하는 'KPGA 군산CC 오픈'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시는 대회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클럽하우스 옆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 부스에서 참가 선수·가족·갤러리에게 군산의 우수 농수산물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장터에 참여한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체 10개소가 딸기잼·떡·미숫가루·박대·홍어·꽃게장·김 등 5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방문객들은 군산의 우수 농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또, 구매를 원하는 관객들을 위해 통곡물 포리지 33%, 현미귀리칩 33%, 군산 귀리 미숫가루 27%, 갑오징어·홍어·박대 등 생선류 20% 할인 등 군산의 우수 농수산물이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성당면 회선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익산시 성당면 회선마을이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영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회선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제12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전북 지역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이뤄낸 마을 발전 사례를 발굴하고,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회선마을은 벼농사 공동 경작을 통한 안정적 마을 소득 창출과 전통문화 보존을 주민 주도로 실천하며, 협력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중수 회선마을 이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라며 "더 살기 좋고 단합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농촌 만들기 분야 '우수상'

정읍시 칠보면 행복이음센터가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마을 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제12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칠보면 행복이음센터(위원장 이경연)는 농촌 만들기 분야 우수상을 차지하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칠보면 행복이음센터는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로, 하모니카·우쿨렐레 등 총 8개의 동아리 프로그램에 주민 122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체 모델을 기반으로 높은 참여율과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 구조를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정인 기자

## 호남권 최초 '익산 코스트코', 8월 내 착공

### 8월 진입 도로 공사 시작 일자리 등 경제 효과 기대

익산시가 호남권 최초로 세계적 유통 브랜드 '코스트코'를 유치하며 광역 경제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돼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치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과거 왕궁물류단지 내에 입점이 논의됐었지만 계약 해지 통보로 한 차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대안을 검토하고 기업과의 끈질긴 협상을 이어간 결과, '익산 입점'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정 시장은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코스트코 익산점이 개점되면 연간 수백만 명의 지역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함께 인근 상권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

또한 시는 코스트코 입점이 청년·중장년층을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물류·교통·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산업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영향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상권과의 실질적 상생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더 가까운 기회, 더 넓은 선택, 더 나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투자유치와 미래형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땀 흘려준 공직자와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으로 확대

### 월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정읍시가 민생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발행액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시민 체감 혜택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액 1000억원은 정읍사랑상품권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시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판매 정책도 대폭 개편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연간 구매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필요한 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돼, 상품권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월별 발행 규모를 기존 60

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0억 원 늘려, 자금이 지역 상권으로 보다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에게는 가게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라며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2025 시간여행축제 공식 협찬사 모집

### 대표축제기업 손잡고 상호 성공적인 윈윈 기대

군산시가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공식 협찬사를 오는 8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는 동시에 기업가치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로 13 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협찬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찬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관광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yaeji9@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의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이 가진 근대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제로 풀어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작년에도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색다른 프로그램과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정평이 나 있다. 외부적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축제'에 6년 연속 선정되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명성을 빛내고 있다.

공식 협찬사는 언론홍보와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및 축제 공식계정 홍보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

객이자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후원 규모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장 내 광고 노출 △홍보부스 운영 △브랜드 데이 운영권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한편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옛 정읍우체국 철거 완료...도시광장 조성 시동

### 문화활동 등 열린 공간 재탄생

정읍시가 옛 정읍우체국 철거를 마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시광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최근 옛 정읍우체국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옛 정읍우체국은 1970년 준공 이후 반세기 이상 지역 주민에게 우편, 택배, 금융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간이다. 그러나 2022년 연지동으로 신청사가 이전되면서 건물은 노후화됐고,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시광장 조성 방안을 마련해 철거를 추진해왔다.

시는 철거를 마친 이 부지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시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 만



정읍시 옛 정읍우체국 철거 현장 사진

<사진=정읍시>

남과 문화활동, 지역 축제까지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보행 접근성 향상과 원도심의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중심 거점으로 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정읍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도심 속 문화·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춘포면 '봄나루문화센터' 개관

#### 교육문화복지 갖춘 복합공간

익산시가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26일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봄나루문화센터'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봄나루문화센터는 연면적 559㎡ 규모로 △나눔카페 △다목적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공유주방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다목적실에서는 탁구, 요가, 난타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동아리실은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운영된다. 공유주방은 나눔 행사 등 지역 먹거리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

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이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중심 기능을 확충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춘포면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019년부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봄나루문화센터 신축과 춘포역사공원 정비 등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어려웠던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체감도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미래 신성장 산업 밀그림 그리다

#### '혁신기관협의회 워킹그룹' 발대식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첫 시작으로 지난 25일 시는 신산업 발굴 및 산업 분야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한 '군산 혁신기관협의회 워킹그룹'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개최된 R&D 혁신기관장 간담회의 실무 이행을 위한 후속의 하나로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플라즈마기술연구소·건설기계연구원·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테크노파크·군산대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혁신·연구기관 본부장 등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산시 산업계 이슈와 미래산업 비전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으며, 최근 산업의 흐름인 '산업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군산시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며 구체적인 협업 방향을 서로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함께 기획하는 '스크러버 관련 오염물질 저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진행 중인 '해양 모빌리티(교통수단) AX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기관별 협업 사례들도 공유되어 향후 워킹그룹을 통한 군산 신산업의 혁신 가능성을 더욱 밝게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청렴문화 확산 시동...직원·시장 열린 대화

이학수 정읍시장이 직원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공정한 인사운영과 청렴 공직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었다.

시는 지난 25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열고, 공직사회의 청렴 가치 정착과 소통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이학수 시장의 청렴 관련 인터뷰를 시작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진솔한 소통이 이뤄

졌다. 주요 질문은 업무 투명성, 인사제도, 내부문화 등 실질적인 공직생활과 맞닿은 내용들로 채워졌고, 세대와 직급을 넘어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학수 시장은 "청렴 감수성은 간부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주한미군 조달시장 진출사업 설명회

#### 미국연방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군산시와 주한미군 411계약여단과 906계약지원대대가 공동 주최한 '주한미군 조달시장 진출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약 150여 개 관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미 조달청 사이트에서 입찰공고를 보는 방법, 실제 입찰하는 방법 등

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사업 설명을 넘어 미국 연방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준비과정과 처리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기업인들은 큰 호응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주한미군 사업체등록 방법 및 입찰부터 계약까지의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프리미엄 브랜드 고창수박 '불티'

지리적표시제 명품 수박 5천덩이 완판 80억원 경제효과 창출

전북 고창군이 '지리적표시 인증 고창수박'을 국내 대표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로 우뚝 세우는데 성공했다. 단순한 지역 특산물의 범주를 넘어 전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 수박'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국내 유명백화점 2곳(신세계, 현대)과 고창마켓 등에서 판매된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5000덩이가 완판됐다.

또한, 올해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박의 도매 시세도 평균 10%이상 상승해 지역 농가의 수익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고창군은 이번 시즌 고창수박 판매 등으로 약 8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지리적표시제 등록 명품수박 첫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홍보·관찰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5월31일 열린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경매 행사에선 고창수박 한 덩이가 500만원에 낙찰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시 현장에는 언론과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며



명품 고창수박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출시 직후 각종 방송과 신문에 비중 있게 소개됐고, '제22회 고창북부지사 박축제' 판매부스에서도 밤 늦게까지 줄이 이어지며 고창군 농업 브랜드 전략의 성과를 증명해 냈다.

고창군은 지난해 9월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본격적인 명품화 사업에 착수했다.

품질 혁신, 명품 생산자 검증, 브랜드 전략을 3축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데 전례 없는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이번 명품화 프로젝트는 '농가 대상 품질 고급화 교육'→'명품수박 생산자 검증'→'당도 및 중량 등 철저한

품질 선별 및 프리미엄 포장'→'고급 브랜드 시장 공략'을 기반으로 실행했다.

이를 통해 당도 12브릭스 이상, 중량 8~9kg의 최고급 수박만을 선별해 GAP 인증(농산물 우수관리인증)과 지리적표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프리미엄 고창수박'을 만들어냈다.

소비자가 1덩이에 5만원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완판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수박은 지역 특산물을 넘어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산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고창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여, 세계가 주목하는 '고창 명품'의 역사를 써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시네마 뮤직 콘서트' 열려

내달 11일 문화예술회관서 개최

한 여름밤의 정취 속에서 영화와 음악의 아름다운 만남을 선사하는 '7월의 시네마 뮤직 콘서트'가 오는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명작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속 OST를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구성했다.

전 세대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코코'와 '미녀와 야수 메들리'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모음곡'이 연주된다.

또 '라라랜드', '오페라의 유령', '캐츠'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무대를 오페라 앙상블 '프리



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동을 더 할 예정이다.

또 '스타워즈', '오즈의 마법사', '캐리비안의 해적' 등 명작 영화의 주옥같은 음악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다시 태어난다.

관람권 배부는 오는 7월 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7월 18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콩 재배 농가 부담 감소

고창군이 오는 7월 18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콩 재배 농가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진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22년에 농가 부담 보험료 20%를 시작해, 지난 2024년에는 10%까지 낮춰 농가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가뭄,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농가 안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농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며 "자부담이 10%로 인화된 만큼,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천연기념물 황새 인공 둥지탑 설치

부안군은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송전탑 위에 둥지를 틀어 정전 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황새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 둥지탑을 설치하고 지난 25일 황새를 이동했다고 밝혔다.

해당 황새 둥지는 고압 송전탑 위에 위치해 정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황새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안군은 인공 둥지탑을 설치한 뒤, 예산항 새공원 황새탐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업을 통해 송전탑

둥지에 있던 새끼 황새들을 조심스럽게 인공 둥지로 옮겼다. 이후 이미 황새가 새끼를 따라 자연스럽게 새 둥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황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만큼, 생태적 피해 없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생생마을만들기 '최우수상'

금산문화복지센터 농촌만들기 분야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촌활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무대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12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산문화복지센터가 농촌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산문화복지센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기반으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은 물론, 배후 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 운영을 직접 수탁하며 안정적인 자치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금산문화복지센터는 상금 350만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오

는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출전할 자격도 획득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금산문화복지센터는 주민 주도의 활동이 농촌 거점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세대별 생성형 AI교육 나서

e-로운 디지털생활 추진 디지털 격차해소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성형 AI교육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진흥중심진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시와 원광대학교, ㈜KTCS가 손잡고 진행되는 협업형 디지털 교육 사업으로 세대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7.5%로 특히,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71.4%로 가장 낮으며, 저소득층(96.5%)이 가장 높고, 장애인 83.5%, 농어민 8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디지털 학습모델을 통해 누구나 AI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3가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먼저 '30 + e로운 직무활용형 AI 교육'은 직장인 및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3기과정으로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익힌다.

'청소년을 위한 AI메이커 교육'과정은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I 코딩과 메이커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디지털헬스케어 체험교실'이다. 읍면 지역 4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고령층에게

디지털 키오스크 사용법, AI 눈건강 체크, VR 체험 등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자체-대학-기업의 자원을 연계한 삼각 협력 체계로 김제시는 평생학습진흥중심지구 사업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총괄과 교육장소 확보, 원광대학교는 디지털 교육관련 고급 인력과 실습장비 지원, ㈜KTCS는 디지털 헬스장비와 강사 지원을 각각 맡아 김제시는 약 5천만원의 예산절감 해택과 함께 주민의 디지털 학습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청년 자립 프로그램 마무리

청년 창업 진출 지원 '부싯돌 프로젝트' 성료

부안군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부싯돌 프로젝트' 제2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군은 26일 부안 석정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부안군청, 월드비전, 멘토리 협동조합, 청년 참가자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부싯돌 프로젝트

최종공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싯돌 프로젝트'는 부안군의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직접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나만의 일을 찾아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형 청년 자립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빈집을 활용한 청년 체류 실험(도그지아) △감정 아카이빙 기반 힐링 캠프(담야, 그리아) △외국인 대상 관광 콘텐츠 '부안의 솔로 시그널'(트레블스쿨) △마을 소통 플랫폼 '마을엔' 개발(소용돌이), △부안 쌀을 활용한 밀가루 프리 간식

개발(재밌는 우리팀) 등 5개 팀이 참여해 지역자원과 청년의 창의성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싯돌 프로젝트는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설계하고, 스스로 자립의 길을 찾아가는 소중한 실험"이라며 "청년들의 작은 불씨 같은 도전이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큰 불꽃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부안군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선운산농협, 수박 직거래 장터 개장

비파과 선별·합리적 가격

고창군 선운산농협이 조합원과 소비자를 잇는 수박 직거래 장터를 6월 24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조합원들이 출하한 수박을 선운산농협유통센터에서 비파과 선별기를 통해 고당도 수박만을 엄선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운산농협은 비파과 선별 기술을 통해 품질은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는 한층 끌어올렸다.

선운산농협 김기우 조합장은 "맛있는 수박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

로써, 조합원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거래 장터는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133(선운산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앞)에서 운영되며,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한 수박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선운산농협은 "농협이 직접 품질을 보증하고,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조합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내달 10일까지 무병 미니씨감자 분양 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서 양액재배로 생산한 고품질 무병 미니씨감자 4품종(주백, 수미, 조풍, 새봉)을 가을 재배용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미니씨감자 4품종의 분양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감자는 바이러스 감염율이 높은 작물로 농업인이 일반 재배로는 무병 씨감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직배양 기술과 첨단 온실의 양액재배 기술을 활용해 미니씨감자를 생산, 매년 2회(봄, 가을)분양하고 있다.

미니씨감자가 농가에게 분양되기까지 조직배양실에서 무병묘를 생산해 첨단시설을 갖춘 온실에서 병해충 사전 방제와 양액재배로 무병 미니씨감자를 생산하고 바이러스 검증과 휴면 타파의 과정을 거쳐 분양한다.

기술보급과는 미니씨감자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오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분양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산·보급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 변산면 지사협 복지사각지대 발굴·나눔 캠페인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선훈, 공공위원장 양정우)는 지난 25일 격포항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착한가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면사무소 직원 등 20명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관심과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거졌다.

참여자들은 격포 지역 상가 및 주택가를 직접 방문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지역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를 홍보하며 나눔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양정우 변산면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훌륭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원예교육 '다육아트' 성료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동진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원예교육 '다육아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진문화복지센터 시설물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동진면민 30명(1기 15명, 2기 15명)이 참여해 총 20회를 이수했다.

교육에서는 다육식물에 대한 이론 교육과 생활용품을 활용한 주제별 실습을 병행했고, 교육 수료자들이 만든 다육아트 작품 50여 점을 '제2회 고매제 작은 음악회'에서 전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다육아트지도사 2급 과정'을 개설해 전문 현장활동가로 육성, 배후마을 등 지역 곳곳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하남선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성장으로 확장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와 성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남원시, 전북생생마을만들기 '최우수'

### 도 콘테스트 마을만들기분야 주생면 제천마을 '최우수상' '행복농촌' 전북 대표 참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제12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주생면 제천마을이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해, 오는 9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구현을 위한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대회로 지난 2014년에 시작해 올해 열두 번째를 맞고 있다.

주생면 제천마을은 '하나 되는 마을, 다시 찾고 싶은 제천'을 목표로 마을 경관 개선과 동아리 활동, 마을 공동 급식, 재능 기부 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딸기, 복숭아) 가공



남원 주생면 제천마을이 전북자치도 주관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오는 9월 농식품부 주관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한다. <사진=남원시>

제품 개발·판매하는 등 주민 소득 창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정주 제천마을 이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밤늦게까지 모여 준비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마을이 밀접하게 소통해 준비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발굴 및 프로그램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 수소에너지지도 진로 특강

###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기념 수소 인재 육성 비전 공유

유희태 완주군수가 26일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의 초청을 받아 '코이의 법칙과 꿈의 크기'를 주제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교육부주관 '2025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약형 특성화고의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동기과 영감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

특강에는 1학년 신입생 72명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자치회는 직접 준비한 감사패와 축하 영상을

준비하기도 했다.

특강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넓게 보고, 깊이 도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도전 정신이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진로 고민을 비롯한 학생들의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송현진 교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진로를 연결지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기업,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체육회, 오산시체육회와 생활체육 교류 등 협력 협약

남원시체육회(회장 류흥성)와 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는 2025년 6월 25일, 남원시체육회 수영장 G·X룸에서 상호협력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매결연 도시 간의 문화체육 및 생활체육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의를 다지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체육회는 향후 동호인 교류, 스포츠 교류전 각종 체육 정보와 인적자원 교류 등을 통해 스포츠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은 "오는 11월 오산시체육회와 함께 개최될 7개종목(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파크골프, 궁도)의 스포츠 교류전은 남원시를 널리 알리고, 우리 체육회의 슬로건인 '시민의 건강 파트너! 체육으로 하나되는 남원시체육회'를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 역시 "이번 협약이 양 도시 체육회의 지속적인 상호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에도 양 체육회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 체육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어 봉사동아리 '청청수어' 운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 봉사동아리 '청청수어'를 운영한다.

이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어(手語, 손으로 하는 언어)를 쉽게 배우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이다.

'청청수어'는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쉬운 수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수어를 어렵지 않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수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까지 제작해 대중교통 이용, 응급상황 대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또래 친구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이 배우고, 그 배움을 또래와 지역사회에 나누는 좋은 흐름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주)유니드비티플러스, 순창군에 1천만 원 성금 기탁

(주)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가 26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산발 피해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주)유니드비티플러스 국내산 목재를 주원료 사용하고 국내 자원 활용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해마다 명절성금 지원, 학대피해아동 후원, 사회복귀시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옥천양원의 3,500만 원 상당의 노후마루를 지원 교체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됐던 호응을 얻었다.

한상준 대표는 "기업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순창군 산발 피해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 돕는 것에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사람·공동체·자원환경을 존중하는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4-H본부, 동부권 4-H 한마음대회 참여

### 남원 등 6개 시·군 700명 참석 농업 금지 4-H 정신 계승 다짐

남원시4-H본부(회장 강성원)는 26일 제14회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에 1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는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등 6개 시·군에서 700명이 참여했다.

동부권 4-H본부는 지·덕·노·체 4-H 이념실천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행사는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

부심을 고취시켜 4-H 이념정신으로 자연을 보고하고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4-H회원은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참여자들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결의했다.

강성원 회장은 "4-H는 농어촌 환경 개선, 농업생산기반 정비, 주곡의 자급 기반 확충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로 지·덕·노·체 4-H 이념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견지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이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물놀이 명소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

### 올해 7·8월 2달간 운영 예정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해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에 앞두고 있다.

2018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물방개 워터파크는 매년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데 작년 기준 3,468명이 방문해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 명소로 자리잡았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동봉동 부영5차아파트 앞에서 즐길 수 있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하루

다섯 차례 50분간 물놀이를 즐기고 10분간 휴식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조형 분수 등으로 더욱 즐겁고 시원한 놀이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며 워터파크 개장에 앞서 방역, 청소를 통해 보다 깨끗한 놀이 시설 이용에 최선을 다한다.

시는 이번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위를 식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 시민 모두가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문협, 군민 문학창작 교실 개강

### '동학' 주제 강연·시 낭송법 등

(사)한국문인협회 순창지부(지부장 장교철)는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특

재능시낭송협회장이 시 낭송의 기초와 낭송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외에도 송준호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조경훈 작가 등 호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교철 지부장은 "이번 강좌는 지역 주민과 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문협은 약 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화 작품은 6월 1일부터 2개월간 강천사 경내에 전시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전북대와 인문학 대중화 협약 체결

### 도서관 연계 인문 콘텐츠 개발 지역민 평생학습 기반 강화

완주군이 전북대와 함께 정통 인문학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를 지역 사회에 확산시킨다.

26일 완주군과 전북대는 완주군청 4층 전라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준화 전북대학교 부총장, 이상현 인문학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학 대중화 사업 및 교육사업 협

약을 체결했다. 전북대학교는 현재 정통-디지털 융합 인문학 콘텐츠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문학 모델을 구축 중이며, 완주군은 이 콘텐츠를 관내 도서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민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과 전북대학교가 손잡고 정통 인문학의 깊이와 디지털 기술의 확장성을 결합해, 지역에 새로운 배움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킨다

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도서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문학 콘텐츠가 생활 속에 녹아들도록 해, 지역민의 지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서관이 지역 인문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화산면 지방상수도 공급 내달 시작

### 334억 투입 생활용수사업 41개 마을 7월 본격 급수

완주군이 화산면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통수에 들어간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도비 보조예산 확보로 총사업비 334억 원이 투입됐다.

상수관로 7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9개소 등이 설치됐으며, 삼거리·화

물리·송치리 등 41개 마을에 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6월 중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7월부터는 마을 단위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통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화산면에 이어 관내 유일한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에 대해서도 412억 원을 투입, 상수관로 56.6km를 신설하는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화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준공을 통해 더 많은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은 일상의 기본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 읍면 지방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모든 군민이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 대비 안전교육

### 3,350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 최영일 군수 특강 나서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약 한달간 순창시니어클럽 주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3,35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안전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교육 첫날인 25일 북흥면 체육관에서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가 특별강사로 초청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 군수는 이번 교육에서 특별강사로 직접 나서 참여자들과 만나며, 다가오는 폭염철을 앞두고 노인일자리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각별히 당부했다.

최 군수는 "여러분의 사회참여는 순



순창군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순창시니어클럽 주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3,350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순창군>

창의 미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입니다"라는 인사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폭염철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가급적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진안군, 상하흔들식 무인방제기 공급 스마트 농업 확대

진안군이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동은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기'를 토마토 재배 농가 4개소에 공급했다.

이번에 도입한 상하흔들식 무인방제기는 기존 수동 방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화된 방제 작업으로 약제 살포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하로 흔들리며 약제를 고르게 분사하는 구조로, 토마토 식물 전체에 균일하게 방제약이 도달하도록 설계돼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인다.

진안군은 이번 무인방제기 보급을 시작으로 △과채류 스마트팜 방제 로봇 △과수 무인방제 시설 △관수 자동제어 시스템 등 ICT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급진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인방제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의 작업 시간과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농업 기술과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 삼계면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150여 가구 반찬 나눔

임실 삼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한영이)가 지난 25일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 150여 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반찬 나눔을 위해 각 마을별 부녀회장이 세심 박사글체협관에 모여 직접 만든 반찬을 각 동네의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영이 부녀회장은 "하루하루를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밥 한 끼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다"며 "반찬 나눔 봉사로 그분들의 마음에 행복감을 전달해 드려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경문 삼계면장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 성료

한국4-H장수군본부(회장 김용만)는 26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4회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무주, 진안,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 4-H회원과 내외빈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를 바탕으로 한 4-H 이념을 실천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부권 4-H본부 회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화합을 도모해 농촌 사회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 농업인들의 통기타, 고고장구 등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4-H 서약 제창과 기념식, 시상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수군4-H연합회 김진완·이주연 회원이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쾌적한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용만 회장은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4-H 운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함께 후계 세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4-H 회원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중요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미래 농업 중심의 부자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보훈수당 15만원씩 지급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첫 신설 5배 인상 "생계 보탬 되길"

임실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는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군은 오는 7월부터 호국보훈 수당을 2만원 인상에 참전용사 기준 15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훈 수당이 처음 신설된 2011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참전용사 기준) 5배 인상한 수치이자,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은 이념 넘는 보훈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보훈 기조에 크게 공감하며,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특별하고 뜻깊은 선물로 수당 인상 방침을 세웠다.

군에 따르면 보훈 수당은 2011년 3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5만원, 2017년 8만원, 2021년 10만원, 2022년 11만원, 2024년 1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7천8백만원



임실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는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사진=임실군>

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1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임실군 보훈 대상자는 총 649명이며, 이는 6.25 참전용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는 15만원 그 외 유공자는 13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군은 6.25 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1억6천만원에 지원해 3.1운동 기념행사, 6.25 기념 안보결의대회, 나라사랑콘서트, 소중제례행사를 개최

하는 등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이라도 보훈 수당을 인상해 왔다"며 "고령이 많은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성과

### 농촌만들기 최우수상 마을만들기 우수상 수상

진안군이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제12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개 분야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 콘테스트에서 △농촌만들기분야최우수상 △마을만들기 분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촌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정천면 동구나무아래센터는 지역 공동체 문화, 복지·돌봄·치유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거점 공간으로, '3대가 함께 살아가는 복합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농촌유학 가족으로 구성된 24명의 '동구나무 합창단'이 '격정 말아오 그대', '바람의 빛깔'을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만들기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진안읍 학전3동 마을은 도시형 농촌 마을로 2021년부터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자율개발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설치, 보행로 개선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발표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봉곡마을이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도 전국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노영권 센터장은 "그 동안 두 마을 모두 준비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번 수상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 16일 조례 개정 공포 수술 후 1년 이내까지

장수군이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술 전 신청'만으로 신청 조건이 한정돼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장수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술 전 신청'만 가능했던 신청 조건을 '수술 전 신청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장수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의료복지사업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 위소득 150% 이하 주민 가운데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 원까지이며 202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3명의 어르신에게 111건의 수술비를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신체적 불편 없이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수군의 강력한 의지이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고등학생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성료

### 건강한 역사·의식 지닌 미래인재 양성 기대

무주군은 지난 5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025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 무주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사후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별 대표 학생의 소감 발표와 사진을 통해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은 무주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업

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본격 준비

### 천만 관광 전략 논의

천만 관광 시대를 향한 진안군의 준비가 본격화됐다.

진안군은 26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실행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춘성 진안군수의 주제로 실·과·소장, 읍·면장, 각 부서 팀장들이 참여해 부서별 역할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2025년도를 준비 연도로 설정하고, 2026~2027년을 본격 실행 기간으로 정해 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세부 목표에 입각한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단계별 실천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콘텐츠 발굴 △홍보마케팅 △관광 수용태세 개선 △민간협력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관광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행정뿐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안 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손잡고 진안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무주읍, '생명존중안심마을' 선정

무주군이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기본계획' 실행에 발맞춰 무주읍에 지역 내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무주군보건요원을 비롯한 무주군치매안심센터, 푸른약국, 무주중학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무주군청소년상담센터, 무주지역자활센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무주읍 자율방범대,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무주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등 14개 기관·단체가 동참한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자살 위험 수단 차단 활동 등을 병행키로 했으며 7월 11일까지 생명 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 키즈 폴기' 등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승하 무주군보건요원 보건행정과장은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에 총출한 자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한국관광공사, '폴인로컬' 성황

장수군은 지난 25일 장수 만남의 광장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주최한 '폴인로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수군이 보유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영역을 장수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3개의 관광벤처기업이 참여해 장수군과의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군에서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맞춤형으로 제안했다.

주요 제안 관광상품화 아이템은 장수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반려견과 함

께하는 장수트레일라이스, XR·디지털 미디어아트 활용, 야간관광콘서트 '장수의 밤' 등이다.

군은 이번 행사가 장수군 맞춤형 관광벤처 상품화 실현의 마중물로서 향후 실질적인 관광객 수 증가와 양질의 현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장수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 찾고, 경험하고 싶은 곳으로 자리잡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물론이고 참여해 준 관광벤처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경찰서, 순찰차 탑승 등 어린이 견학

진안경찰서(서장 홍장득)는 26일 진안군 소재 사랑어린이집 원생 17명 대상으로 경찰서 견학을 시행했다.

이날 체험학습은 △지문 등 사진등록 △순찰차 탑승 등 어린이들이 경찰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순찰차 탑승 및 체험을 통해 경찰업무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경찰관에게 전달하

고, 어린이에게 포돌이, 포순이 밴드를 선물로 전달하며 아이들의 경찰서 견학 시간을 풍부하게 마무리했다.

홍장득 서장은 "미래의 꿈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어린이 대상 맞춤형 교육·시설보강·캠페인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지속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및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정읍 내장상동지사협, 저소득 청소년에 도서구입비 지원

정읍시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중·고등학생 20명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며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협의체는 지난 24일, 학업에 필요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학업을 응원했다. 이번 사업은 내장상동 협의체의 특화사업인 '저소득 청소년 희망사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임실 덕치면지사협, 찾아가는 칼갈이 봉사활동 실시

임실군 덕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형준, 김영수)가 지난 24일 덕치면 하두마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 2차 봉사활동을 위해 하두마을을 방문하여 무더진 칼과 가위 등을 정성껏 갈아드리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힘을 보탰다.

/임실=한병열 기자

### 익산 여산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여름이불 세트 전달

익산시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승복)는 26일 지역 내 취약계층 25가구에 여름이불과 베개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은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이불과 베개를 전달했다. 이승복 민간위원장은 "이웃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원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군산시와 '희망나눔' 13년째 협약

### 3억9,800만 원누적 지원금

군산시와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이 26일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이 2013년부터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잇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화에너지의 누적 지원금은 총 3억 9,800만 원 규모에 달하

며, 2025년 한 해에도 4,500만 원의 후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기업연합 봉사활동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이 포함된다.

김두용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남원 운봉읍, 화재에도 안심! 취약계층에 투척용 소화기 지원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가구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존의 일반 소화기는 사용법이 복잡하여 신체 기능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 그동안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운봉읍은 "단지기만 하면 바로 진화가 가능한" 투척형 소화기를 도입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고산면 인풍마을, 표지석 제막

### 마을 역사정체성의 이정표

완주군 고산면 인풍마을에 표지석이 세워졌다.

26일 인풍마을이 주관한 표지석 제막식이 양아리에 소재한 인풍교 인근(양화로 298)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고산면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마을주민, 출향인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고산면 주민자치회 풍물반의 풍물놀이 공연, 감사패 전달, 인사말,

경과보고, 축사, 표지석 제막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표지석 제막에는 내빈 및 마을 대표 주민 12명이 함께 커팅식에 참여했다.

백철호 인풍마을 이장은 "표지석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닌 인풍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주민 모두가 행복찬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고창 아산면지사협, 국가유산이웃 사랑 실천

고창군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장성균) 위원 20여명이 아산면 반암리 고인돌 일대에서 국토대청결운동과 취약계층에게 반찬 나눔 지원을 실시했다.

행사는 소중한 국가유산인 반암리 고인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사협 위원들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취약계층 45세대를 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군산 옥산농업협동조합, 소외계층 위한 성금 기탁

군산 옥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규석)이 26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산면 저소득 세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통해 투명하게 접수·배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규석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농협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과 나눔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삼덕전기(주), 진안군에 500만 원 기탁

삼덕전기(주) 이병수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진안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가 진안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안군이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를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달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진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군산 성산면 오성문화복지센터, 취약계층에 화장지 200개 전달

성산면 오성문화복지센터(위원장 채인석)가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200가구에 화장지(30롤) 200개를 지원해 훈훈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성품은 오성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심심일만 모은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31개 마을 이장님들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 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저, 포크 no!

〈一事一言〉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김관춘  
논설위원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그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최근 일련의 행보는 이러한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방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며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들 눈에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 그 자체로 비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 몇 새만에 이들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한 조치였으나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의 이러한 신속한 조치에 '특검 효능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들 부부의 신병을 하루빨리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간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나 비록 기각은 되었지만 특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28일 비공개로 전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씨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군 게이트 관련 조사를 끝내 피하고 있다.

'부장부수'라는 말이 있다지만, 이처럼 나란히 국가의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사례가 또 있을까.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부부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어땠을까? 벌써 몇 차례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았을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안하무인식 탈법 태도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내란 혐의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미래셋증권 녹음과 일의 등장 등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거리를 넘어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새로운 증거들이 연이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미적거리고 외면하거나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권력의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사법 체계에 대한 반역이다.

특검은 특히 이들이 과거 검찰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던 정황에 주목해야 한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황제 출장'을 떠나기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발표 직전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비화폰 통화 등은 수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충분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고의로 부실 수사해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형 공모 범죄일 가능성도 높게 예측되고 있다.

이쯤 되면 수사 회피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공권력 유린'의 범사에까지 이른다. 이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어떤 자제로 사건에 임했는지를 되짚어볼 때, 당시에 수사 책임을 맡았던 이들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 훼손의 정황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이들 특검이 외면한다면 특검제도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의 수사 회피는 법을 지키는 다수 국민들에게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이들이 법망을 피해 거리를 확보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의로운 국가'로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자아낸다.

이 부정과 탈법 앞에 국민은 무

력하지 않다. 지금도 SNS와 언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은 비등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되살리려는 시민들의 외침이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이 원칙을 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며 수사를 방기하거나 축소하려 한 이들 모두를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들이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의 배우자였든, 공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상관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에 따라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즉각 체포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권위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정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이제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상식이, 이 나라에서 다시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말씀하게 사라질 때 그것이 공정한 사회요, 상식이 지배하는 합리적 선진사회다. 그러한 선진사회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

사설

서거석 교육감 낙마 이후의 전북 교육 과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에게 원상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그의 직위도 즉시 상실됐다. 이로써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급히 전환했고 내부는 하루 종일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만큼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력 신장, 교권 보호, 학생 복지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활발한 정책 행보를 보여왔던 만큼 그의 퇴진은 적잖은 정책적 공백을 야기할 우려를 낳는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치우치지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신속한 행정 복귀가 우선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부교육감이 1년 이상 직책을 맡아 이끌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행정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감 고유의 비전 제시나 교육계 외부와의 유기적 협력,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서거석 교육감의 중도 낙마로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학력 보장' '교사 업무 정상화' '복지 기반 강화' 등 중점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 재

정비와 명확한 정책 연속성이 필요하다.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내부 체제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행정의 연속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들과 교육계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소통과 투명한 운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있어 법적 윤리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판결 결과를 두고 억울함이나 유감을 표하기에 앞서 선거과정과 재임 중 행위가 공직의 품위에 부합했는지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수장이자 동시에 지역사회의 교육 생태계를 이끄는 상징적 지도자다. 그 직위에 걸맞는 도덕성과 법적 엄정성은 다른 어떤 공직보다도 무겁다. 서거석 교육감의 낙마로 인해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질 보궐선거는 전북 교육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 보궐선거는 단순한 진영 대결이나 인물 중심의 구도로 흐르기보다는 전북 교육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냉철한 평가와 선택이 있어야 한다. 학력 저하, 교권 붕괴, 지역 간 교육 격차 등 당면 과제는 산적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해프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백기를 딛고 전북교육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선, 조직의 내부 안정과 함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차기 지도자의 책임 있는 행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재 열전



나주시씨 절도공파 중증유품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문서류, 시권류  
-지정일 - 1992년 6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순창군 동계면  
유산길 40-10 (유산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관리 규정 및 실연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준비 없는 희망 / 박노해

준비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 가는데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희망 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머릿속에 고정시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야간에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	을 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변하지 않는 진실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 민선8기 3주년 정헌율 시장, 10년 성과 발표 익산시, 변화의 10년 도약의 1년...다시 시민과 함께

정헌율 익산시장이 26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열린 브리핑에서 "남은 임기를 마지막이 아닌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민선6기부터 8기까지 지난 10년간 지나온 발자취를 복기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은 3선 연임 제한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정헌율 시장에게 사실상 마지막 공식 중간 점검의 자리였다. 하지만 정 시장은 "마무리가 아닌, 더 큰 익산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임을 선언하며 마지막 1년을 미래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시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전북권 광역철도 구축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 주민과의 대화...주요 정책 시민 의견 반영

### ◆뜨거운 새 마음으로 달릴 1년

이날 정 시장은 혁신과 안정의 조화를 통해 익산의 미래를 든든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익산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국가사업들은 단순한 구상을 넘어 현실의 기반 위에 초석을 놓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한눈에 보는 '국립식품박물관'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다. 식품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종합문화 공간 건립으로

익산은 식품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과 타당성 확보 용역을 통해 국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왕궁 자연환경복원 프로젝트와 산재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북권역의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대광법 개정으로 정책적 골조를 띠었다. 그간 추진해 온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과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역점 사업도 정 시장 특유의 특성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멈춤 없이 이어나갈 방침이다.

### ◆정주 여건 혁신...살고 싶은, 살맛 나는 익산

브리핑에서는 그간의 성과도 상세히 다뤘다. 익산은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르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주택 정책은 정 시장이 그려온 그림의 핵심이다.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며 시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켰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도시 중심부 주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다. 변화가 일대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했고, 익산역 인근으로는 1,100여 면 상당의 주차 구역을 확보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상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잔여 면수, 주차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요금 결제까지 하는 스마트 주차장 사업도 도입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도 눈에 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성공은 코로나19로 침몰하던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화폐 중에서도 가장 빨리 안정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보증 지원 등 내실 있는 서민 금융 지원책을 통해 일자리, 복지, 소비, 금융까지 아우르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날마다 푸르른, 활기찬 익산

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환경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조경사업을 넘어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온도 조절, 녹지 네트워크 확충 등 실질적 환경 복원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힘입어 익산은 이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도전하고 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민간특례 공원'은 익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녹색 정책이다. 마동·모인·소라·수도산공원 등이 새롭게 조성돼 도심 한가운데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 속 휴식 공간을 확보하며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왕궁 축산단지 현업 축사 매입은 장기간 문제로 지적돼 온 약취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왕궁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환경 복원 사업으로 새로워지게 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보는 관광'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기억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활영 명소로 알려진 교도소세트장부터, 다이노키즈월드 중심지로 하는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등이 현장 체험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역 고유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 야행은 백제왕도 익산의 매력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 문화와 자연, 생활과 휴식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익산은 이제 일상을 즐기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다음 10년 준비하는 첫해 초심으로 돌아가 달릴 것"

### ◆끝까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정헌율 시장이 이끄는 익산시는 시장 운영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단순한 민원 수렴에서 벗어나 시민이 시장의 동반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했으며,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시민 참여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사안들은 정책이냐 예산에 반영되는 등 시장 반응률이 높아지며 시민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의 결과, 익산시는 5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설문조사, 토론회, 시민소통마당, 시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공간의 설계자이자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참여형 공공건축'의 모델을 제시했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지난 10년의 연장선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첫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한다는 일념으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